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라는 원어는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바와 같이’라는 뜻이다. 원문대로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바와 같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었고 항상 복종했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복종이 지금 그가 떠나 있을 때에도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선언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죄의 결과는 매우 고통스런 불행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구원’은 죄짓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믿은 이들은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을 얻었다(롬 3:24; 히 10:10, 14). 우리가 받은 의와 거룩함은 완전하다. 그것은 법적인 의미이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순종의 선한 행위가 구원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의를 이루셨고 그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필요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오직 믿음으로 감사히 받고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할 뿐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밝히 증거했다.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

마서 4:4-5,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샅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곧 이미 받은 의(義)에 일치하는 인격이 되고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다. 즉 순종의 생활을 가리킨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이 성화(聖化)의 과정이다. 우리의 성화는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이며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우리는 완전을 목표로 한 성화를 위해 소극적이거나 게으르지 말고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후에 즉시 우리의 순종 생활 즉 성화의 노력과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주의 피로 구속(救贖)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로마서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활동은 우리의 자발적 소원과 노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 의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한다. 경건해지려는 소원, 거룩해지려는 소원, 의로워지려는 소원, 선해지려는 소원,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며 성령의 감동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남아 있는 죄성

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하고 선한 소원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그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예를 들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 즉 불평과 다툼을 삼가야 한다. 주께서는 일보다 우리의 성화된 인격을 더 원하신다. 원망, 불평, 분쟁은 인격의 흠과 결함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흠과 결함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를 위해 봉사할 때에 원망, 불평, 분쟁을 버리고 항상 사랑과 협력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화의 목표는 한마디로 ‘흠 없는 인격과 삶’이다. 이 세상은 항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바른 표준에서 볼 때 언제나 비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 세상은 경건 대신 불경건을 택하고, 거룩 대신 더러움을 구하며, 의(義) 대신 불의를, 선(善) 대신 악을 따르며, 또 진실 대신 거짓을 택하는 세상이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부패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사회개혁을 부르짖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 성도들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답게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는 바로 실제적인 경건과 거룩을 의미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삶은 이렇게 흠 없고 순전한 삶, 즉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다. 그런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도덕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부른다(요 1:5; 뵤전 2:9). 어두움은 무지와 부도덕과 슬픔을 가리킨다. 그러나 구원은 빛이다. 그것은 지식과 도덕성과 기쁨의 회복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의 구원받은 삶, 성화의 삶, 선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밝힌다’는 원어는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뜻이거나 ‘불튼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것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하였던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다. 구원은 새 생명이며 새 생활이다. 그러므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악된 옛 습관과 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새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닐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흠 없는 생활을 할 때, 생명의 말씀의 참됨이 드러난다.

만일 성도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는 헛되고 그들의 사역은 열매 없는 사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빛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 성도들은 전도자들의 기쁨과 자랑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의 끝부분에서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4:1). 데살로니가전서 2:19-20에서도 그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했다. 참된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쁨과 자랑이다.

[17-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붓는 제물로 드러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믿음의 제물과 봉사’란 ‘믿음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를 가리킨다. 빌립보 교인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주께 드리며 주의 일을 위해 즐거이 봉사하였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일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 위에 자신이 붓는 제물로 드러질지라도 기뻐하겠다고 말한다. ‘자신이 붓는 제물로 드러진다’는 말은 그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불평스런 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헌신과 봉사이었다. 옥에 갇혀 있는 그는 죽을 각오를 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오,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는 나의 생명이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 위에 부어질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은 기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의 원천이다. 다윗은 시편 16:11에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갈 5:22). 천국은 기쁨의 세계이다(롬 14:17).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다. 구원은 행복한 일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이었다.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하였다. 또 그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였다. 이 기쁨은 오늘 우리의 것이다.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천국 소망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합당하게 주께 순종하며 흠 없는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이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법적인 구원, 곧 완전한 의(義)에 일치하는 인격과 삶을 현실 속에서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화(聖化)이다.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義)를 우리의 삶 속에서 흠 없는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얻은 의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다. 이것은 과거의 죄악된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세상은 악하며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하며 이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화는 우리의 성화의 정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상이 되고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성도의 성화의 삶, 곧 순종의 삶은 결코 무겁고 엄숙한 일만이 아니고 매우 기쁜 일이다. 구원에 합당한 삶, 곧 흠 없는 삶을 살고자 순종하며 애쓰는 자들은 이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항상 기뻐해야 한다. 죄사함과 죄의 다 하심과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주일오후설교 **게시를 받은 경위**

[계 1:9-11]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 . .

사도 요한은 자신을 성도들의 형제라고 말했다. 이것은 노사도의 겸손한 인품을 나타낸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겸손히 처신해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그의 직분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다(마 16:24; 행 14:22; 딤후 3:12). 우리는 다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또한 그의 나라와 참음에도 동참하는 자들이다. 환난이 있지만, 그의 나라도 있고 또 참으면 영광도 있다(딤후 2:12). 그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과 승천이 있음과 같다.

사도 요한은 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가 계시를 받은 경위를 말한다. 그는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 그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날도 주일이었고(요 20:19, 26),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고(행 2:1; 례 23:15-16),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이었다. 사도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일을 복된 날로 구별하시는 표들이 있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주의 계시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섬에 있었다. 전해진 말에 의하면, 그는 밧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받게 하기 위해 그를 밧모섬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기며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롬 8:28).

사도 요한은 그가 보는 내용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 주 예수께서 요한이 본 내용을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보 관하고 전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더 굳게 서고 더 큰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성경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온전함을 위해 성경책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하며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야 한다.

[12-16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人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 . .

사도 요한은 일곱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서신 영광스럽고 엄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본 첫 번째 내용은 일곱 금촛대이었다. 그것은 일곱 교회를 가리켰다. 교회는 금촛대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존귀하고 교회는 영광스럽다(엡 5:26-27). 교회를 촛대로 묘사한 것은 그것의 사명을 보인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은 지식과 의와 선과 기쁨을 상징한다.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내용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人子) 같은 이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묘사되었다.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은 그의 왕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 같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것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또 그의 눈이 불꽃같은 것은 그의 깊고 철저한 통찰력을 나타내시며, 그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것은 그의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신다.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은 그의 말씀의 큰 권위를 나타내신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것은 그가 교회들의 목사들을 불드시고 사용하심을 나타낸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쪼개는 그의 예리한 말씀을 나타내신다.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은 것은 그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영화로우시고 엄위하시다. 그 영광의 주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재림 직전의 종말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17-20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있도다. 아멘.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졌다. 주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신비는 성경이 증거하는 기본적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망과 음부[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는 죄인들을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주이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과 일곱 금촛대들과 ‘이제 있는 일’ 즉 당시의 교회들의 일들과 ‘장차 될 일’ 즉 교회 역사상 되어질 일들과 주님 재림 직전의 일들을 기록해야 했다. 일곱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할 것이다.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목사들의 영적 상태와 충성의 정도를 교인들이 잘 모르고 주님만 아시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주장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의 위엄과 거룩, 통찰력과 능력, 영원하심, 살아계심,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심을 알아야 하고, 특히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존귀한 교회들과, 별들과 같은 목사들을 주관하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교회들을 주께 맡기며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한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부족이 없지 않지만 일곱 금촛대들로 간주되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옷의 흉패와 견대에 있는 보석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잘 세워나가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들은 촛대들로 표현되었다. 촛대는 빛을 비추는 기구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14). 그것은 우리의 선행을 교훈하신 것이다(마 5:16).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선행이라고 말하였다(딤후 2:14). 우리는 전도와 선행으로 지식과 의와 선의 빛을 비춰야 한다.